열대풍토병에 관하여

(열대지방 여행시 조심해야할 질병) 제 5 회

리슈마니아증

○리슈마니아증은 나방파리에 의해 전파되며 리슈마니아증은 피부 리슈마니아증, 점막 리슈마니아증, 내장 리슈마니아증, 멕시코 리슈마니아증 등 4종류가 있다.

○내장리슈마니아(칼라아자르, 흑열병)는 지중해연안, 인도 남부, 러시아, 아프리카북부, 중국 및 남미등지 등에 유행한다.

○특징적인 증세는 발열, 간장과 비장의 비대 그리고 부종, 임파선이 붓고 코나 입에서 출혈이 일어난다.
방치하면 2년내에 사망한다.

○피부리슈마니아증의 유행지는 중앙아세아, 메소포타미아, 인도서북부, 이란, 이라크, 스페인, 이탈리아, 이디오피아 등지에 많으며 증세는 피부조직 및 점막에 괴사, 또는 궤양을 일으킨다.
치료는 안티몬제제의 복용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브라질 리슈마니아증은 칠레를 제외한 중남미에 분포한다. 페루에서는 에스푼디아라고 부른다.
증상은 피부 점막 접촉부에서 입주변, 코, 목 부위 까지 확대되고 전신증상은 발열, 체중감소 및 호합장애 등을 일으켜 사망하는 수도 있다.

○멕시코 리슈마니아증은 병변이 피부에 국한되며 점막까지 파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본증 치료제는 안티몬제제 및 소디움안티모니 글루코에트(펜토스탄)가 유효하며 나방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트리파노소마증

○편모를 갖고 있는 원충으로 사람의 혈액 조직에 기생하며 종류는 4종류로서, 감비아, 로데시아, 쿠르즈, 란겔 트리파노소마가 있다.

○감비아 트리파노소마(수면병)
수면병의 원인이 되는 원충으로서 북위 10° 남위25° 사이의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되어 있다.
매개곤충은 체체파리에 의해 감염된다. 체체파리에 물린 뒤 1~2주는 아무 증세없이 지낼수 있으나 차츰 임파선이 붓기 시작하고 고열은 약 1주

간 지속된다.
간장, 비장의 비대, 두통, 무의식상태, 근경련호소, 결국은 수면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초기치료는 가능하나 뇌신경계에 증상이 일어나면 예후는 불량하다.
치료제는 수라민(게루마린, 안트리폴)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로데시아 트리파노소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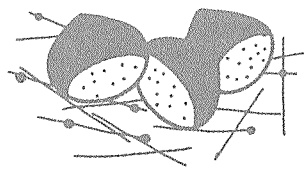
아프리카 동부지역 로데시아, 타자니아, 케니아, 우간다, 모잠비크, 수단 등에 분포되어 있다.
매개는 역시 체체파리이며 수면병을 일으킨다.
증세 및 치료제는 감비아 트리파노소마증과 유사하다.

○크루즈 트리파노소마증(샤가스병)

샤가스병은 서반구의 중남미에 국한되어 있으나 브라질은 가장 심한 만연국으로 알려져 있다.
트리아토마빈대를 통해서 인체에 감염되며 비장, 간장, 임파조직, 심근조직 등의 세포내로 들어가 리슈마니아형이 되어 분열 번식한다.
치료는 아미노퀴놀린 유도체를 사용하나 특효약이 없다.
빈대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이다.

○란겔 트리파노소마증

중남미 지역중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콰테말라 등에 분포되어 있다.
매개곤충은 로드니우스라는 빈대로 감염되며 병원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방치료는 샤가스병에 준한다

페스트

○ 풍토병으로 인도, 베트남, 중국 등에 존재한다.
페스트에 감염된 쥐, 벼룩에 의해서 감염되며 잠복기는 보통 2~4일이며 갑자기 고열, 두통, 구토, 피로감이 있고 임파선이 부어 올랐다가 다음에 곪는다.
또한 흑사병이라고 해서 두려운 질병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썰파제나 항생물질로 치유되는 질병이기도 하다.